

한국어 “크기” 명사 부류에 대하여

송근영^U 홍재성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arico, cshong}@snu.ac.kr

On “Dimension” Nouns In Korean

Kuen-Young Song^U Chai-Song Hong
Dep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불어 명사의 의미·통사적 분류와 관련된 ‘대상부류(classes d’objets)’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크기” 명사 부류에 대한 의미적, 형식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자연언어 처리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일부 명사들은 어떤 대상 혹은 현상의 다양한 속성이 특정 차원에서 갖는 규모의 의미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길이’, ‘깊이’, ‘넓이’, ‘높이’, ‘키’, ‘무게’, ‘온도’, ‘기온’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측정의 개념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통사적으로도 일정한 속성을 공유한다. 즉 ‘측정하다’, ‘재다’ 등 측정의 개념을 나타내는 동사 및 수량 표현과 더불어 일정한 통사 형식으로 실현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국어 명사들을 “크기” 명사라 명명하며, “크기” 명사와 특징적으로 결합하는 ‘측정하다’, ‘재다’ 등의 동사를 “크기” 명사 부류에 대한 적정술어라 부른다. 또한 “크기” 명사는 결합 가능한 단위명사의 종류 및 호응 가능한 정도 형용사의 종류 등에 따라 세부 하위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로 술어와의 통사적 결합관계를 기준으로 “크기” 명사 부류를 외형적으로 한정하고, 이 부류에 속하는 개개 명사들의 통사적 세부 속성을 전자사전의 체계로 구축한다면 한국어 “크기” 명사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의미적·통사적 분류와 기술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크기” 명사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이들 명사를 특징지어주는 단위명사 부류의 연구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 “크기” 명사를 한정하고 분류하는 보다 엄밀하고 형식적인 기준과 그 의미·통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줄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한국어 자동처리에 활용되어, “크기” 명사를 포함하는 구문의 자동분석 및 산출 과정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현재 구축중인 세종 전자사전에도 직접 반영되고 있다.

1. 서론

본 논문은 불어 명사의 의미·통사적 분류와 관련된 ‘대상부류(classes d’objets)’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크기 명사 부류에 대한 의미적·형식적 기준을 세워, 이 기준에 부합되는 명사들을 유형화시키고 분포적, 통사적 성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부류란 의미적으로 균질한 명사 부류를 일컬으며, 의미·통사적 속성을 기준으로 한 명사의 분류 이론이다. 대상부류 방법론은 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의미제약을 명시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자연언어처리에서 다의어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가 크기 명사라 지칭하는 어휘들은 ‘길이’, ‘넓이’, ‘높이’ 등과 같이, 어떤 대상 혹은 현상의 다양한 속성이 특정 차원에서 갖는 규모와 관련된 의미를 표현하며, 측정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명사들이다. 사실 한국어 명사의 의미적 분류는 우리말 개념망 구축을 위해 국어학계 및 공학계에서 이미 시도된 적이 있다.¹⁾ 대개 시소러스 형태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는 주로 개념적 연관관계에 근간을 둔 어휘연구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측정’과 ‘크기의 정도’라는 연관관계를 지닌 개념들이 한 부류로 포괄되어, ‘길이’, ‘넓이’, ‘높이’, ‘눈금’, ‘뿔’, ‘손대중’, ‘저울’ 등 연상 가능한 여러 단어가 하나의 개념부류로 통합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접근은 개념적 관련을 갖는 여러 명사를 한데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한 부류에 속하는 명사들 사이에 형식적으로 포착 가능한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한편 보다 공학적 관점에서 의미분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사전의 뜻풀이말을 이용한 명사의미부류 구축 시도도 있으나, 그 근간이 되는 사전의 뜻풀이가 완전한 형식적 일관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단지 개념적 관련성보다는, 보다 형식적인 동질성을 공유하는 명사들을 크기 명사로 한정시켜 엄밀한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언어공학적 관점에서 즉각적 활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엄밀하고 형식적인 기준과 체계적 의미·통사 정보들은 한국어 자동처리에 활용되어 크기 명사를 포함하는 구문의 자동산출에 즉각적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현재 구축중인 세종 전자사전에 직접 반영되고 있다.²⁾

2. 크기 명사의 정의

크기 명사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의 다양한 속성이 특정 차원에서 갖는 규모의 의미를 나타내고, 측정 가능하며, 통사적으로도 일정한 속성을 공유하는 명사들로, ‘기온’, ‘길이’, ‘깊이’, ‘넓이’, ‘높이’, ‘무게’, ‘온도’, ‘키’ 등이 예가 된다. 이들 명사가 공유하는 통사적 속성은 ‘측정하다’, ‘재다’ 등의 동사, 혹은 수량 표현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구문으로 실현된다는 점이다.

(1) N0-가 N1-의 <크기>를 측정하다[재다]

(2) N1-의 <크기>는 <수사> (<단위명사>)이다
 (3) N1-은 <크기>가 <수사> (<단위명사>)이다
 (<>는 대상부류 이론에 따른 명사 부류명용, ()는 생략 가능성을 표시)

(4) ㄱ. 철수가 영수의 체온을 측정한다.
 ㄴ. 영수의 체온은 37 도이다.
 ㄷ. 영수는 체온이 37 도이다.

물론 크기 명사가 사용될 수 있는 문장은 이 세 가지 구문에만 한정되지는 않으나, 우리는 위의 세 구문을 크기 명사의 기본구문으로 본다. ‘측정하다’, ‘재다’ 등의 동사는 크기 명사 부류를 통사적으로 특징짓는 술어이다. 이와 같이 대상부류 이론에서 각각의 대상부류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통사기준으로, 각 대상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이 공통으로 결합할 수 있는 동사, 형용사 등을 통합하여 적정술어라 지칭한다.

3. 크기 명사의 유형

2절에서 언급된 기준에 따라 크기 명사로 분류될 수 있는 명사들을 또다시 하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례로 크기 명사 중에서도 ‘기온’, ‘체온’ 등의 명사는 온도를 나타내는 명사에 속하고, ‘체중’, ‘몸무게’ 등은 무게를 나타내는 명사에 속한다. 온도와 무게는 각각 개념적으로 독립된 영역에서 측정 가능한 규모의 속성을 나타내며, 이 차이는 크기 명사의 기본구문에서 호응 가능한 단위명사의 유형, 《수사 + 단위명사》에 상당하는 형용사의 종류,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부류 등에도 반영된다.

3.1. 단위명사의 유형

‘길이’, ‘넓이’, ‘무게’, ‘시간’ 등은 각각 독립된 차원의 크기를 나타내며, 이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위명사도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단위명사의 종류를 길이 단위, 넓이 단위, 무게 단위, 시간 단위 등으로 구별한다면, 이에 따라 크기 명사의 부류도 세분이 가능하다.

<크기>

명사	단위명사
<길이> 길이, 지름, 직경, 거리	mm, cm, m, km, 피트 등
<넓이> 넓이, 면적, 평수	m ² , cm ² , m ² , km ² , ha, 평 등
<무게> 무게, 체중, 중량, 몸무게	mg, g, kg, 톤, 근 등
<부피> 부피, 용량, 체적	cc, ml, cm ³ , m ³ 등
<빠르기> 빠르기, 속도, 속력, 시속	m/s, m/h, km/h 등
<온도> 온도, 기온, 체온, 수온	도, °C, °F 등
<시간> 시간, 반응시간, 지속시간	초, 분, 시간 등

이처럼 각각 독립된 차원에 속하는 길이, 넓이, 무게, 부피, 빠르기, 온도, 시간 등의 개념은 그 측정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위명사와의 호응관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결국 크기 명사의 분포적 속성에 있어 단위명사가 긴밀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크기 명사에 대한 통사적, 분포적 속성은 단위명사 대응관계와 함께 기술되어야 하며, 각각의 크기 부류를 특징짓는 단위명사를 ‘적정단위명사’라 한다.

3.2. 《수사 + 단위명사》 대응 형용사

- (5) N1-의 크기는 <수사> (단위명사)이다
- (6) N1-은 크기가 <수사> (단위명사)이다

위의 구문을 만족시키는 크기 명사에 대하여 호응하는 단위명사의 종류에 따라 크기 명사를 하위부류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결합가능한 단위명사의 종류만이 크기 명사를 더 작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동일한 차원의 단위명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속성의 차이에 따라 또다른 하위분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에서 볼 수 있듯 길이의 단위명사와 호응관계를 이루는 크기 명사들로는 ‘길이’, ‘지름’, ‘거리’, ‘반경’, ‘높이’, ‘고도’, ‘깊이’, ‘수심’, ‘키’, ‘신장’, ‘폭’ 등이 있다.

- (7) ㄱ. 선분 AB는 길이가 3 cm이다.
- ㄴ. 이 원은 지름이 10 cm이다.
- ㄷ. 이 건물은 높이가 50 m이다.
- ㄹ. 이 산은 고도가 1,800 m이다.
- ㅁ. 이 연못은 깊이가 10 m이다.
- ㅂ. 철수는 키가 180 cm이다.
- ㅅ. 이 리본은 폭이 10 cm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길이 단위명사를 취하는 크기 명사라 하더라도 다음 문장에서 볼 수 있듯 《수사 + 단위명사》 연쇄에 대응할 수 있는 형용사의 종류는 명사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다.

- (8) ㄱ. 선분 AB는 길이가 (길다/짧다 + *높다/낮다 + *깊다/얕다 + *크다/작다 + *넓다/좁다).
- ㄴ. 이 건물은 높이가 (*길다/짧다 + 높다/낮다 + *깊다/얕다 + *크다/작다 + *넓다/좁다).
- ㄷ. 이 연못은 깊이가 (*길다/짧다 + *높다/낮다 + 깊다/얕다 + *크다/작다 + *넓다/좁다).
- ㄹ. 철수는 키가 (*길다/짧다 + *높다/낮다 + *깊다/얕다 + 크다/작다 + *넓다/좁다).
- ㅁ. 이 리본은 폭이 (*길다/짧다 + *높다/낮다 + *깊다/얕다 + *크다/작다 + 넓다/좁다).

이에 따라 길이 단위명사와 호응 가능한 크기 명사를 다음과 같이 더욱 세분할 수 있다.

<크기>
:

<길이>	길이, 지름, 반지름, 직경, 구경	(길다/짧다)
<거리>	거리, 반경	(멀다/가깝다)
<높이>	높이, 고도	(높다/낮다)
<깊이>	깊이, 수심	(깊다/얕다)
<키>	키, 신장, 앉은키	(크다/작다)
<폭>	폭, 너비	(넓다/좁다)
	:	

이밖에도 크기 명사 각각의 하위부류들과 호응할 수 있는 적절한 형용사의 쌍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넓이>	면적	(넓다/좁다)
<무게>	무게, 체중, 몸무게, 중량	(무겁다/가볍다)
<빠르기>	속도, 속력	(빠르다/느리다)
<세기>	진도, 강도	(세다/약하다)
<시간>	시간, 반응시간	(길다/짧다)
<신체감각능력>	시력, 청력	(좋다/나쁘다)

한편 ‘상당하다’와 같은 형용사는 비교적 부류의 제한 없이 크기 명사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 (9) ㄱ. 이 건물은 높이가 상당하다.
- ㄴ. 이 집은 무게가 상당하다.
- ㄷ. 이 연못은 깊이가 상당하다.
- ㄹ. *?철수는 시력이 상당하다.

3.3.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부류

대개의 크기 명사에 대해서는 결합하는 명사 부류를 한정시키기 어렵지만, 일부 크기 명사에 대해서는 결합 가능한 명사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높이> 명사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어휘로 ‘높이’, ‘고도’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명사는 모두 길이 단위명사와 호응 가능하며 ‘높다/낮다’ 형용사 쌍과 공기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전자의 경우 결합 가능한 명사의 의미부류가 그다지 제한적이지 않다면 후자의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 (10) ㄱ. 이 건물의 높이는 50 m이다.
- ㄴ. 이 산의 높이는 1,800 m이다.
- ㄷ. 이 나무의 높이는 3 m이다.
- ㄹ. 이 책상의 높이는 90 cm이다.
- ㅁ. 이 삼각형의 높이는 3 cm이다.

- (11) ㄱ. *이 건물의 고도는 50 m이다.
- ㄴ. 이 산의 고도는 1,800 m이다.
- ㄷ. *이 나무의 고도는 3 m이다.
- ㄹ. *이 책상의 고도는 90 cm이다.
- ㅁ. *이 삼각형의 고도는 3 cm이다.

이와 유사한 제약으로 ‘신장’은 인물 명사와만 결합하는 크기 명사이고, ‘지름’은 길이 중에서 ‘원’, ‘구’ 등의 명

사에 대해 사용되는 크기 명사이다.

전문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위표현 명사와 결합하는 크기 명사의 경우 또다른 유사한 제약이 있다. 즉 특정 크기 명사가 특정 단위명사와만 결합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밝기를 표현하는 명사 '광도', '조도'는 각각 '칸델라'와 '럭스'라는 단위명사와만 호응한다.

3.4. 적정술어

크기 명사 전체를 아우르는 적정술어로는 '측정하다', '재다'가 있으나, 일부 크기 명사 부류만을 특징짓는 또다른 적정술어가 존재하기도 한다. <무게> 명사 부류가 그 대표적 예이다. 이 명사 부류에 고유한 술어로는 '나간다', '달다'가 있다.

- (12) ㄱ. 영수가 그 가방의 무게를 (측정한다 + 재다 + 단다)
- ㄴ. 그 가방의 무게는 10 kg (이다 + 나간다)
- ㄷ. 그 가방은 무게가 10 kg (이다 + 나간다)

4. 명사의 생략 가능성 및 논항구조

일부 크기 명사 부류에 대하여 기본문형에서 크기 명사, 혹은 단위명사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4.1. 크기 명사의 삭제 가능성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듯 크기 명사가 삭제되어도 이에 대한 정보의 손실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 (13) ㄱ. 이 집은 면적이 40 평이다.
- ㄴ. 이 집은 40 평이다.

대개 단위명사가 제시된 크기 명사 부류와만 결합이 가능한 경우, 해당 크기 명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평'은 <넓이> 명사 부류와만 결합가능한 단위명사이므로, <넓이> 부류에 해당하는 크기 명사가 생략되어도 그것이 '넓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임을 추측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주어진 단위명사가 반드시 하나의 크기 명사 부류와만 호응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크기 명사가 삭제 가능한 상황도 있다.

- (14) ㄱ. 우변의 길이는 3 cm이다.
- ㄴ. 우변은 3 cm이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크기 명사의 기본문형에서 N1 위치의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크기 명사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15) 우변의 (길이 + *높이 + *거리 + *키)는 3 cm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위의 두 조건 중 어떤 것도 만족시키지 않지만 관례상 생략된 크기 명사를 유추할 수 있기도 하다.

- (16) 이 리본은 50 cm이다.

이 예에서 단위명사 cm는 <길이>, <높이>, <키>, <폭> 등의 여러 크기 명사 부류와 호응할 수 있으며, '리본'이라는 명사도 '길이'와 '폭'의 크기 명사와 관련이 있으므로, 생략된 크기 명사의 후보는 한 개가 넘지만, 관례상 생략된 크기 명사는 '폭'이라기보다는 '길이'이다.

4.2. 단위명사의 생략 가능성

일부 크기 명사에 대해서는 단위명사가 생략될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특정한 단위명사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 (17) ㄱ. 영수의 허리 사이즈는 31 (인치)이다.
- ㄴ. 영수는 허리 사이즈가 31 (인치)이다.
- (18) ㄱ. 진아의 시력은 1.5이다.
- ㄴ. 진아는 시력이 1.5이다.
- (19) ㄱ. 우영이의 IQ는 130이다.
- ㄴ. 우영이는 IQ가 130이다.

4.3. 특수한 논항 구조를 갖는 크기 명사

우리가 크기 명사로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문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 (20) N0-가 N1-의 <크기>를 측정하다[재다]
- N1-의 <크기>는 <수사> (<단위명사>)이다
- N1-은 <크기>가 <수사> (<단위명사>)이다

그런데 일부 크기 명사 중에는 위의 문형과는 조금 다른 통사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거리'와 같은 명사가 그 대표적 예인데, 이 명사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한다.

- (21) N0-가 N1-과 N2-의 <크기>를 측정하다[재다]
- N1-과 N2-의 <크기>는 <수사> (<단위명사>)이다
- N1-과 N2-는 <크기>가 <수사> (<단위명사>)이다
- (22) ㄱ. 서울과 대전의 거리는 150 km이다.
- ㄴ. 서울과 대전은 거리가 150 km이다.
- ㄷ. *서울의 거리는 150 km이다.
- ㄷ. *서울은 거리가 150 km이다.³⁾

이와 같이 다른 크기 명사와는 상이한 기본문형을 갖지만, '거리'와 같은 명사도 수사, 단위명사와 함께 사용되며 측정의 개념을 내포하는 등 기본적인 크기 명사의 개념에 부합되므로 크기 명사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5. 크기 명사의 유형화 및 대상부류 방법론에 따른 크기 명사 기술

앞서 언급된 크기 명사 부류의 정의와 대상부류 방법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개의 크기 명사가 지닌 통사적 속성을 표상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크기 명사들에 대하여 이들과 호응하는 단위명사, '수사+단위명사' 대응형용사, 적정술어, 단위명사 생략가능성, 수 표현 범위에 대한 제약,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부류 제약 등에 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다.

길이 C:<크기-1>\D\N0:<인물>\N1:<구체>\N2:\Adj\W\Sy\ResNum:
 고도 C:<크기-3>\D\N0:<인물>\N1:<산>\N2:미터, 킬로미터, 피트\
 Adj\W\Sy\ResNum:
 수심 C:<크기-4>\D\N0:<인물>\N1:<물-지리>\N2:m,km\Adj\W\Sy\
 ResNum:
 신장 C:<크기-5>\D\N0:<인물>\N1:<인물>\N2:(센티미터), 미터
 \Adj\W\Sy\ResNum:[0<Num<250] 센티미터, [1≤Num≤2] 미
 터 [0≤Num<100]
 체중 C:<크기-8>\D\N0:<인물>\N1:<인물>\N2:킬로그램\Adj\W3:나가
 다\Sy\ResNum:[0<Num<200]
 체온 C:<크기-11>\D\N0:<인물>\N1:<인물>\N2:<온도단위>\Adj:
 \W\Sy\ResNum:[30<Num<45]

(C : 명사부류 D : 전문영역⁴⁾ N : 결합명사 Adj : <수사+단위명사> 대응 형용사 표현 W : 적정술어 Sy : 유의어 ResNum : 수사 제약)

이들 명사는 크기 명사의 형식적 정의에 부합되는 명사들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크기 명사의 구문 속성을 표상할 때 정보의 명시적 표상과 더불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기술의 경제성이다. 즉 부류 이름에 따라 기본값을 설정해 줌으로써, 개개 어휘별로 일일이 중복되는 정보를 기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크기>라는 부류명을 부여받음으로써 각각의 명사는 크기 명사의 정의적 기본구문을 취할 수 있다. 한편 <크기-1>과 <크기-8>은 크기 명사의 기본문형을 공통으로 취하나, 결합가능한 단위명사의 종류에서 차이를 보인다. <크기-1>이라는 부류에 길이 단위명사를 취한다는 정보를 설정해 놓으면, 어떤 명사에 이 부류명을 부여할 경우 단위명사에 대한 정보를 다시 주지 않아도 이 명사는 자동적으로 길이 단위명사를 취하도록 기본값을 부여받게 된다. 한편 <크기-1>과 <크기-3>는 단위명사의 종류에 있어서는 동일한 정보를 갖지만 호응가능한 형용사의 종류, 논항 의미부류 제약, 단위명사 제약 정보의 차이에서 구분된다.

이와 같이 부류명에 따라 미리 기본값을 설정할 경우, 개개 어휘별로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정해진 구획에 명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무게> 부류 명사는 무게 단위명사와 호응하지만, 이 부류에 속하는 명사 '체중'은 모든 무게 단위명사와 결합하지는 않는다. 이 때는 해당 구획에 결합가능한 단위명사를 직접 기재함으로써 이 어휘에 대한 기본값 설정을 수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크기 명사의 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형식화가 가능하다. 크기 명사 부류는 단위명사 부류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으므로 두 부류 명사 표상이 연결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설계되어야 한다.

세종 전자사전의 명사 기술에도 역시 동일한 방법론이 반영되고 있다. 다음의 예에서 의미부류(@sem)가 '크기'로 주어질 경우 해당 표제어는 자동으로 크기 명사의 기본구문 및 통사속성을 부여받으며, 주어진 구획에 각각 고유한 논항제약, 결합정보 등을 제시한다.

```
<superEntry>
● 넓이
  <entry n=1>
    %writer=[송근영]
    %dic=[채언/단일어]
    %crd=[2001/09/12]
    %mdd=[2001/09/12]
    %note=[]
  <toplevel>
    @form=[넓이]
    @pos=[nn]
    @see=[]
  <morph_a>
    @var[xs=; xd=; xx=]
    @abb=[]
    @lng=[]
    @str=[넓.이]
    @org=[()]
    @symp=[]
  </morph_a>
  <morph_b>
    @hom[]
    @der=[(n);(v);(a);(av)]
    @comp=[(n)~뛰기;(v);(a);(av)]
    @metc=[(n);(v);(a);(av)]
    @img=[xs={}; xd={}; xx={}; xp={}]
  </morph_b>
  <froz>
    @idnp=[]
    @idna=[]
    @idnv=[]
    @idda=[]
    @prv=[]
    @idetc=[]
  </froz>
  </toplevel>
  <sense n=1>
    @eg=[이 방은 ~가 얼마나 되지?]
    @trans=[arealextension]
    @domain=[]
    @reg=[]
    @con=[]
    @curs=[U]
    @sem=[크기]
```

```

@nm_sub=[]
@cl_sub=[]
@np_sub={sem=;num=;ref=}
@rel_n=[]
<lr>
@syn={면적}
@ant=[]
@hyper=[]
@hypo=[]
@coord={높이|길이|깊이|무게}
@holo=[]
@mero=[]
@rel={가로|세로|높이}
</lr>
<synt_a>
@cl={uni=;grp=;div=;qnt=평|평방미터|제곱미터}
@prt=[]
@av=[]
@ds=[]
</synt_a>
<synt_b>
@comb_aj={~가 넓다|좁다|상당하다}
@magn=[]
@comb_v={~를 재다|측정하다|넓히다|구하다}
@comb_ida=[]
@comb_n=[]
@supv={; cor_v={}}
@max_n={X-의 ~}
@sel_res={X=장소|도형}
</synt_b>
<synt_c>
@pre_d=[]
@pre_n=[]
@pre_s=[]
</synt_c>
<synt_d>
@flt=[]
@carord={car=;ord=}
@rep=[]
@etc=[]
</synt_d>
</sense>
</entry>
</superEntry>
<superEntry>
●신장
<entry n=1>
%writer={송근영}
%dic={체언/단일어}
%crd={2001/09/12}
%mdd={2001/09/12}

```

```

%note=[]
<toplevel>
@form={신장}
@pos={nn}
@see=[]
<morph_a>
@var[xs=; xd=; xx=]
@abb=[]
@lng=[]
@str=[]
@org={si(身長)}
@symb=[]
</morph_a>
<morph_b>
@hom[E]
@der={({n});(v);(a);(av)}
@comp={({n}평균~;(v);(a);(av)}
@metc={({n});(v);(a);(av)}
@img=[xs={}; xd={}; xx={}; xp={}]
</morph_b>
<froz>
@idnp=[]
@idna=[]
@idnv=[]
@idda=[]
@prv=[]
@idetc=[]
</froz>
</toplevel>
<sense n=1>
@eg={그는 ~이 1미터 70이다}
@trans={height|stature}
@domain=[]
@reg=[]
@con=[]
@curs={U}
@sem={크기}
@nm_sub=[]
@cl_sub=[]
@np_sub={sem=;num=;ref=}
@rel_n=[]
<lr>
@syn={키}
@ant=[]
@hyper=[]
@hypo=[]
@coord={체중|몸무게|얇은키|가슴둘레}
@holo=[]
@mero=[]
@rel={키다리}
</lr>

```

```

<synt_a>
  @cl=[uni=;grp=;div=;qnt=센티미터|미터]
  @prt=[]
  @av=[]
  @ds=[]
</synt_a>
<synt_b>
  @comb_aj=[~이 크다|작다]
  @magn=[]
  @comb_v=[~을 재대측정하다|늘이다;~이 줄다]
  @comb_ida=[]
  @comb_n=[]
  @supv=[; cor_v={}]
  @max_n=[X-의 ~]
  @sel_res=[X=인간]
</synt_b>
<synt_c>
  @pre_d=[]
  @pre_n=[]
  @pre_s=[]
</synt_c>
<synt_d>
  @flt=[]
  @carord=[car=;ord=]
  @rep=[]
  @etc=[]
</synt_b>
</sense>
</entry>
</superEntry>

```

6. 결론

이상과 같은 접근은 단지 개념적인 바탕에서만 시도된 명사 분류에 비하여, 관찰 가능한 언어적 형태, 즉 분포 가능한 특징적 통사구문의 존재, 적정술어 및 적정 단위명사와의 결합 가능성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형식적인 근거에 입각한 명사 부류의 한정과 하위 부류체계 설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 예로 든 크기 명사는 이러한 형식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 엄밀히 한정된 부류이다. 실제의 개개 어휘가 크기 부류 및 그 하위부류에 해당되는지의 판단 여부는 이상의 형식적인 기준과의 부합성을 대규모의 말뭉치를 활용하여 검증받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이 추출된 크기 명사 및 이들 각각의 통사적 속성은 문장의 자동산출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인구', '나이', '가격' 등의 명사는 '측정하다', '재다'와 같은 측정술어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기 명사 부류와 구별되나, 측정의 개념과 전적으로 무관하지 않은 않고, 수 표현 및 단위명사를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크기 명사와 일정한 연관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명사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상위의 부류 설정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주)

- 1) 남영신(1993), 박용수(1994), 임홍빈·한재영(1993), 조평옥·옥철영 외 (1999) 참고.
- 2) 세종 전자사전에서는 대상부류 방법론에 입각하여 명사에 의미부류를 명시하며(5절 참조), 세종사전 명사 의미부류체계는 부류·위계의 균형을 고려하여 현재 약 200 개의 의미부류와 5 개 층위의 의미위계로 설정되어 있다. 한편 세종 전자사전과는 별도로 동일 방법론을 도입한 한국어 명사 의미부류체계 연구과제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3년 과제로 5,000 여개의 한국어 명사에 대해 10,000-15,000 개의 의미 용법 구별을 시도하고 있다.
- 3) 두 필수논항 중 하나가 문맥상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

예) (여기서부터) 서울은 거리가 150 킬로미터이고 광주는 (거리가) 200 킬로미터이다.

- 4) 전자사전 구축에 전문영역의 표시는 필수적이다. 각종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어휘 및 신조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상적인 어휘들도 전문영역과 관련된 의미로의 파생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창'은 최근 컴퓨터 사용에서 가장 일상적인 표현이 되었다. 그러므로 전문영역의 기술은 전문분야에서만 쓰이는 특수한 언어표현의 정확한 이해와 다의어 의미 분할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

7. 참고문헌

- [1].Le Pesant, D. (1996), Vocabulaire des prédicats de grandeur et des noms d'unités de mesure, *Cahiers de Grammaire* n° 21, Université de Toulouse Le Mirail pp. 45-74.
- [2].Le Pesant, D. et Mathieu-Colas, M. (éds.), (1998), Les classes d'objets, *Langages* n° 131.
- [3].남영신 (1989), 우리말 분류 사전 (1) <이름씨편>, 한강문화사.
- [4].노윤채 (2001 예정), 측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N₀ V N_i 형 동사들에 대하여, "한국불어불문학회 2001년도 논문집", 한국불어불문학회.
- [5].박용수 (1995), 새 우리말 갈래 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 [6].임홍빈·한재영 (1993), "국어 어휘의 분류 목록에 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7].조평옥·안미정·옥철영·이수동 (1999), "사전 뜻풀이말에서 구축한 한국어 명사 의미계층구조", 인지와 학 10권 4호.
- [8].홍재성 외 (2000), "2000년도 세종계획 전자사전개발분과 결과보고서", 문화관광부.